



강진 김영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호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규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광양 미래 '광양 해비치로'

해오름육교' 명칭 탄생해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및 '경관육교' 공모 결과 확정



광양시가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및 산화섬~마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 명칭을 '광양 해비치로'와 '해오름육교'로 각각 확정했다.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방옥길 부시장)를 열고 사전 시민선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명칭 각 10개에 대해 상징성, 독창성, 전달성, 연관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공식명칭으로 확정된 '광양 해비치로'

는 해(태양)와 海(바다 해)가 빛+이의 합성어로 '비치'는 beach(해변)를 의미한다. 365일 언제나 광양 온 누리에 해가 비치듯 와우공유수면 일대 해안선 9.4km 구간이 늘 빛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또, 산화섬과 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경관육교의 새로운 이름 '해오름육교'는 해가 떠오르는 형상으로, 시 마스코트인 비래소년 해아와도 연관성을 높이며 광양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

이렇게 두 이름은 '빛 광(光) 별

양(陽)'이라는, 광양(光陽) 지명의 상징인 태양, 밝음, 희망, 미래, 발전 등의 의미를 모두 담았다.

한편, 이번 명칭 공모는 광양시가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인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과 경관육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브랜드를 통한 대국민 사전홍보를 위해 실시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이름은 곧 사업의 지향점이자 청사진이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데, 백운산권과 섬진강권을 잇는 거점으로 광양관광의 미래가 될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의 공식 명칭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확정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명칭으로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를 금년 내에 개발해 상표등록하고, 광양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고흥군, 서핑대회 최초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2020년 도쿄올림픽·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고흥군은 최근 영남면 남열리 해수욕장에서 서핑대회 최초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 하였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서핑 국가대표 선발전'이 참

가 선수들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흥 남열해수욕장은 높은 파도와 바람 등 기상조건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져 서핑경기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핑 경기의 주경기장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와 함께 오는 8월에도 전국서핑 동호회를 위한 전국서핑대회를 준비하

고 있으며, 이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고흥어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고흥 관광객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남자 선수 16명, 여자선수 5명이 출전하여 최종 국가대표선수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세계서핑대회(ISA) 및 올림픽에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고흥=한운섭 기자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전국 최대급 백자 가마터 발굴

보성군이 지난달 20일 조선시대 대형 가마터 긴급 발굴에 나섰다. 가마터는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에서 발견·신고되었으며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조사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 사업에 착수했다.

백자 가마가 있는 문덕면 봉갑리 일대는 1991년 주암댐이 완공되면서 수몰된 지역으로 민수위 때는 물에 잠겼다가 갈수기에 백자파편이 노출되면서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됐다.

보성지역에서 19세기 백자 가마가 정식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규모가 국내 최대급으로 매우 대형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성지역 도자 가마에 대한 기

록은 '경국대전'에 처음 등장하며, 최근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마들이 조사되어 보고되었으나, 보성군은 도촌리에서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 외에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가마는 주암호에 인접한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간에 이르는 번조실이 확인됐다. 번조실은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점점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다.

각실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불창 기둥을 7~13개씩 세워 구분하고 있으며, 도자기를 넣거나 꺼내는 출입구는 각 번조실 우측 하단에 설치했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은 진흙으로 바닥과 벽을 다

진 후 넓고 길고 편평한 돌을 그 위에 깔았고 구멍을 통해 연기가 수평으로 빠져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장흥 월송리, 무안 피서리, 장성 수유리 등지에서 발굴된 19세기의 백자 가마와 유사하며, 출토 유물은 백자 사발과 대접, 종지와 같은 반상용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을 때는 가마 입구는 현재 목속에 잠겨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보성군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 욕구가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 적극 보존·활용할 예정이다.

보성=안규일 기자

순천시,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실현'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포용 정책의 가장 핵심은 '더 안전하고 모두가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순천시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두가 편안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도시 전체에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와 재난이 없는 안전도시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도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순천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 도시,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등

10개 분야 26명의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순천시 사업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자문과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단계부터 디자인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CGV극장에서 구기업은행까지 380m 구간을 보차도 단차제거, 상가HUD적용, 야간경관 등을 시행하고, 장천, 풍덕 지하차도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보도 및 차도, 공원,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분야로 확대해 도시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한 도시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시는 범죄와 재난이 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범 CCTV 380대를 운영하며 24시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31명과 시민안전리더 17명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있다.

또 시민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고 4713회,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비 12억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방범, 재난 교통 등 개별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추진 박차



함평군청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마늘, 양파 등 밭작물 수확이 집중되는 이달 21일까지를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고령화 등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 독거노인·고령농가·장애농가 등 일손이 특히 부족한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해가 갈수록 지역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을 추수기에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호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병해충 방제 본부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대책본부는 병해충 방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기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문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